도시의 문화자산으로서 공예와 공예도시 연구*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UCCN)를 중심으로-

정수희**

국문초록

최근 많은 도시들이 '공예도시(Craft City)'를 자칭하며, '공예'를 도시브랜드로 내세우고 있다. 공예도시를 주장하는 도시들의 많은 경우는 관련 문화유산, 공예와 관련된 생산, 소비지로서의 역사·문화적 환경을 내세우며 공예도시로서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 도시들이 과연 현대적 의미에서의 공예도시로 살아가고 있는가는 사실 전혀 다른 문제일 수 있다. 여기서 '공예도시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된다. 왜 많은 도시들이 지금 공예도시를 주장하고 있는 것인가, 또한 그들이 말하는 공예도시는 과연 무엇이며, 공예도시를 이루는 구성요소로서 공예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등에 대한 고민이 생기게 된다.

도시가 가진 문화자원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도시들은 저마다 문화도시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도시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요인이 과거의 외형적 성장중심 이 아닌 도시의 문화적 역량중심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의 패러다임이 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으로 전환되어 가며, 그 핵심에 놓인 지역성(locality)을 구성하는 요인으로서 지역이 가진 역사· 문화자산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도시들은 저마다의 특색을 'ㅇㅇ도시'라는 명칭의 도시브랜드로 발전시키기 위하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예는 창조도시(Creative City)를 이루는 주요한 요소이자, 창조산업(Creative Industry)의 핵심 요소로 언급된다. 또한, 한 도시의 고유성 및 역사성을 대표하는 가장 명확한 문화자원으로 도시와 연계된 다양한 문화정책의 기준으로 제시되기도 하며, 유네스코의 창의도시네트워크 중 한 분야로 분류되는 등 도시의

* 이 연구는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3A2067374)

** SSK 글로컬문화와 공감사회 연구센터 전임연구원

접수일(2018년 11월 17일), 수정일(2018년 12월 16일), 게재 확정일(2018년 12월 18일)

구성요소로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본 연구는 공예를 도시의 문화자산으로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접근하고 있는 '공예도시'의 실체에 대한 고민과 함께 도시에서 공예가 갖는 의미를 모색해보려는 시도로 진행됐다. 그러나 전술하여 지적한 바와 같이 공예도시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고민들이 미흡한 실정이기에, 본 연구자는 검증된 공예도시의 실제 사례를 통해 역설적으로 공예도시에 대해 접근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택한 사례는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와 그중 '공예와 민속예술' 분야 도시로 가입된 일본 가나자와시(2009년 선정)이다.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는 유네스코(UNESCO)는 도시의 문화적 자산과 창의력에 기초한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도시들 간의 협력을 통한 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추진 중인 국제연대사업으로 가나자와는 '공예와 민속예술(Craft&Folk Art)'를 대표하는 도시들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창조도시 가나자와의 문화자산으로서 공예가 갖는 정체성에 대해 알아보고, 이와 연계하여 가나자와를 창조도시로서 자리 잡게 한 문화 환경, 이를 뒷받침해 주는 도시의 문화정책들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가나자와를 비롯한 공예도시들의 개념과 속성, 지속가능을 위한 방향성 등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했다.

주제어: 공예도시, 문화자산, 공예, 창의도시, 유네스코창의도시네트워크

I. 서론 : 공예도시에 대한 고민

도시가 가진 문화자원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도시들은 저마다 문화도시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문화관광부에서 시작한 '문화도시' 사업과 같은 대규모 정책 사업뿐만 아니라, 지자체 및 지역 단위에서도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써 문화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도시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가치가 외형적 발전에 의한 성장 지향을 넘어, 문화가 가진 상징성과 잠재적 가능성, 더 나아가 도시의 창조산업의 중심으로서 '문화자산'이 가진 가치가 높아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다.

이와 함께 국내외 다수의 도시들은 문화자산을 통한 도시브랜딩을 진행 중이다. 도시마다 각각이 가진 다양한 문화자산들을 자신들의 특화된 브랜드로 발전시켜, 도시의 대내외적 경쟁력을 높이려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국제사회의 패러다임이 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으로 전환되어 가며, 그 핵심에 놓인 지역성(locality)을 구성하는 요인으로서 지역이 가진 역사 · 문화자산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도시들은 저마다의 특색을 '○○도시'라는 명칭의 도시브랜드로 발전시키기 위하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국내만 해도 '역사도시', '전통문화도시', '문학도시', '미디어도시', '만화도시' 등 다양한 도시브랜드가 존재한다.

이들 중 몇몇 도시들은 스스로를 '공예도시(Craft City)'로 지칭하며, 도시브랜드로서 '공예'를 내세우고 있다. 공예도시를 주장하는 도시들의 많은 경우는 관련 문화유산, 공예와 관련된 생산, 소비지로서의 역사·문화적 환경을 내세우며 공예도시로서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물론, 이들이 주장하는 역사적 배경은 도시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하고 기본적인 요건이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접근은 공예도시를 주장하는 도시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과거로 한정짓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측면을 발견할 수 있다. 과거의 공예가 번창했었던, 혹은 어떤 의미를 가

졌던 것에 대한 기준뿐만 아니라, 지금의 그 도시를 현재적 의미에서의 '공예도시'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이다. 한편으로, 그렇다면 '공예도시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된다. 왜 많은 도시들이 지금 공예도시를 주장하고 있는 것인가, 또한 그들이 말하는 공예도시는 과연 무엇이며, 공예도시를 이루는 구성요소로서 공예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등에 대한 질문이 생긴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질문에 답을 제시할 수 있는 '공예도시'에 대한 공인된 정의나 학술적 연구는 아직까지 거의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공예도시를 주장하고 있는 도시들조차 자신들이 주장하는 공예도시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은 간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제는 이에 대해 보다 진지하게 고민해보아야 할 때이다.

실제로 도시의 문화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 공예는 창조도시(Creative City)를 이루는 주요한 요소이자, 창조산업(Creative Industry)의 핵심 요소로 언급된다. 또한, 한 도시의 고유성 및 역사성을 대표하는 가장 명확한 문화자원으로 도시와 연계된 다양한 문화정책의 기준으로 제시되기도 하며, 유네스코의 창의도시네트워크 중 한 분야로 분류되는 등 도시의 구성요소로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본 연구는 공예를 도시의 문화자산으로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접근하고 있는 '공예도시'이 실체에 대한 고민과 함께 도시에서 공예가 갖는 의미를 모색해보려는 시도로 진행됐다. 그러나 전술하여 지적한 바와 같이 공예도시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고민들이 미흡한 실정이기에, 본 연구자는 검증된 공예도시의 실제 사례를 통해 역설적으로 공예도시에 대해 접근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택한 사례는 문화를 기반으로 한 도시에 대한 국제적 인증제도인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와 그 중 '공예와 민속예술' 분야 도시로 가입된 일본 가나자와시(2009년 선정)이다.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는 유네스코(UNESCO)가 2004년부터 도시의 문화적 자산과 창의력에 기초한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도시

들 간의 협력을 통한 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추진 중인 국제연대사업으로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이 사업은 총 도시의 대표적 창의자산을 총 7개의 분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공예와 민속예술(Craft&Folk Art)'이다. 가나자와시(金沢市)는 일본에서 가장 먼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했으며, '공예와 민속예술' 도시로 현재 가장 대표적인 창의도시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1] 가나자와의 창조도시 구축 과정은 창조도시의 대표적 이론가 중 하나인 사사키 교수의 연구를 통해 알려졌으며, 국내의 여러 연구에서도 이를 소개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가나자와의 창조도시로서의 속성과 그 발전과정에 대해 집중하고 있어,[2] 가나자와의 도시브랜드로서 공예도시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창조도시 가나자와를 이루고 있는 주요한 도시의 속성으로서 '공예도시'에 집중하고자 한다. 가나자와는 도시의 문화자산으로서 공예가 갖는 정체성에 대해 알아보고, 이와 연계하여 가나자와를 창조도시로서 자리 잡게 한 문화 환경, 이를 뒷받침해 주는 도시의 문화정책들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가나자와를 비롯한 공예도시들의 개념과 속성, 지속가능을 위한 방향성 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1) 가나자와시(金沢市)는 일본 혼슈 중앙부에 위치한 이시카와현에 위치한 인구 46만의 지방도시이다. 호쿠리쿠(北陸)지방의 최대 도시로 정치·경제·교육·문화의 중심지이다. 시의 남북으로는 하쿠산(白山)국립공원과 노토(能₩登)반도 국정(國定)공원이 자리 잡고 있고, 사이가와(犀川)와 아사노가와(淺野川)라고 불리는 두 강을 중심으로 벼농사를 중심으로 술, 과자, 가공식품 등의 특산 · 명산품을 생산해오고 있다.

2) 이때 사용하는 창의도시와 창조도시의 개념은 유사한 속성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사용함에 있어 '창의도시'는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 등을 지칭하는 정책 용어로서 사용하며, '창조도시'는 도시이론에 의한 학술 용어로 구분하여 사용함

II.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트(UCCN)와 도시의 문화자산

1. 창조도시와 도시의 문화자산

포스트 포디즘(Post Fordism)과 포스트 모더니즘(Post Modernism)과 같은 사회구조의 변화는 도시의 주요 가치에 대한 인식 전환으로 연결됐다. 포스트 포디즘은 이전의 산업화 중시의 획일적인 생산이 아닌 유연적인 변화를 고려하는 사회 구조로의 변화를 초래했으며, 포스트 모더니즘은 예술과 일상적 측면에서 소비대상의 변화를 유발하며 기존의 상품, 완성된 것(ready-made)의 소비 중심에서 '의미'의 소비로 전환을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는 도시를 바라보는 관점에도 가치 중심의 접근이 이루어지게 되는 배경이 되며, 도시의 경쟁력을 외형적 성장뿐 아니라 도시의 보다 실제적인 내실에 주목하며, 도시메이킹, 도시브랜딩 등의 개념이 부상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도시가 가진 역량으로서 도시의 창조성에 주목하는 창조도시의 개념 또한 등장했다.[3)]

창조도시의 대표 연구자로 거론되는 제이콥스(Jacobs J.), 랜드리(Landry C.), 플로리다(Florida R.), 사사키(Sasaki M.) 등은 각각 도시의 유연성, 창조계층과 3T, 창조적 환경(Creative milieu), 도시의 시스템 등이 도시의 창조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특히, 뉴욕이나 도쿄, 파리와 같은 대도시 중심의 시각에서 탈피하여 이탈리아의 중소도시인 볼로냐, 피렌체 등에 주목하며 이들 도시들이 가진 창조성의 근간이 도시의 문화적 자원과 그 주변 환경을 통해 구축될 수 있음을 강

3) 창조도시'라는 용어는 영국의 문화미디어 체육부(DCMS,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의 〈창조산업 전략보고서(the creative industries mapping document)〉(1998)에 창조산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주목받게 됐다. 이후, Coy(2000), Howkins(2001) 등이 『The Creative Economy』에서 '창조경제(creative economy)'의 출현을 예고하고, 창조산업(Caves, 2002), 창조경제(Coy, 2000; Howkins, 2005), 창조계층(Florida, 2002), 창조도시(Landry, 2005; Sasaki, 2004/2008) 등이 주장되며 도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창조도시의 개념이 발전했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구광역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방안』, 2015, 9쪽).

조하고 있다.

이들 중 일본의 사사키 교수는 창조도시를 인간이 자유롭게 창조활동을 함으로써 문화와 산업의 창조성을 풍부하게 하며 동시에 탈대량생산의 혁신적이고 유연한 도시경제시스템을 갖춘 도시로 정의했다. 도시의 예술문화에서 그 도시만의 스타일(style)이 육성되어야 한다. 그는 도시가 내부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환경을 통해 예술가, 창작자, 일반시민이 활발한 창의적 활동이 가능해야 하며, 이것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도시의 창의산업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이러한 환경 속에서 지역과 시민활동을 통해 도시 내외에서 벌이지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자생력을 가진 도시가 진정한 창의도시라고 설명한다. 이때, 문화예술이 내포한 창조성이 역동적인 성장력과 높은 고용효과, 도시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다양한 아이디어의 제공, 역사문화 자원을 통한 도시정체성의 강화,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양분으로서 동력이 되며, 그렇기에 창조도시에서 문화자산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사키 교수는 이러한 주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로 일본의 가나자와시를 꼽고, 가나자와시야말로 문화(전통공예)와 예술(현대미술, 시민예술)의 공생적 관계를 통해 독자적인 지역 스타일을 완성한 대표적인 창의도시의 사례라고 강조했다.

사사키 교수를 비롯한 창조도시에 대한 논의들은 공통적으로 도시가 가진 문화적 가치와 창조적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는 곧 도시가 가진 문화자산에 대한 발견과 이해, 이를 발전시킨 다양한 가능성이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준다는 논의로 연결된다. 또한 지역성(locality)을 강조하는 글로컬라이제이션의 국제적 흐름과도 맥락을 함께 한다. 즉, 도시의 문화적 역량이 도시경쟁력을 가져오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시각이다. 이때, 도시의 문화역량은 도시가 갖고 있는 고유한 문화자산을 통해 만들어지며,[4] 차별화된 문화자산은 도시 고유의 브랜드를 구축하며

4) 도시의 문화자산은 오랜 기간 동안 지역에 공유되어 온 역사·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도시의 정체성으로 발전하여 도시의 브랜드가 되기도 한다. 때문에, 현대의 도시들은 각각의 도시가 가진 문화자산에 더욱 주목하며, 이를 통한 도시발전을 도모하는 노력을 진행 중이다. 도시의 문화자산은 도시가 가진 고유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도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도시의 지속가능한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한 도시브랜딩 역시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도시생태계의 관점에서 도시의 문화자산으로서 도시콘텐츠의 개발은 도시의 내발적 발전과 더불어 도시 외부로의 문화적 영향력 발신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도시의 창의성에 대한 인식은 개념적 논의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도시, 국가 단위의 다양하 도시정책으로 이어져 도시의 문화정책을 변화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도시가 가진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인정과 이를 통한 도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 중이다. 이 중, 유네스코의 창조도시 네트워크는 예술문화에 관한 세계 수준에서의 경험이나 지식, 전문기술을 가진 도시들의 네트워크를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문화, 예술 등에서 특색 있는 도시에 대해서 창의도시라는 칭호 부여하며,[5] 이들 도시 간 문화적 협력과 연대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 특히, 이 사업은 도시가 가진 문화자산을 유형화하여 각각의 도시들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 선정하고, 그들 간의 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기타 도시로의 문화적 이니셔티브를 발신하는 것을 지원하는 도시의

1차적 문화자원으로서 문화원형과 이를 바탕으로 현대 기술과 트랜드를 반영하여 새롭게 가공한 2차 문화자원의 형태로서 문화콘텐츠를 모두 포함하여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정수희, 이병민, 「지역의 문화자산으로서 문화콘텐츠와문화콘텐츠관광 연구: 일본 콘텐츠투어리즘 사례를 중심으로」, 『관광연구논총』 제28권 제4호, 관광연구논총, 2016, 60쪽.

5) 창의도시는 전술한 창조도시의 논의와 같은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다. 창의도시와 창조도시 모두 creative city를 의미하며, 다만 국내에서 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창조도시의 경우 기존의 도시이론을 중심으로 거론할 때 사용되고 있으며, 창의도시의 경우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와 같은 정책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문화’가 주요한 기준이자 매개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사업이다.

2.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개념 및 현황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UCCN, 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는 유네스코(UNESCO)가 도시의 문화적 자산과 창의력에 기초한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도시들 간의 협력을 통한 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2004년부터 추진 중인 국제연대사업의 명칭이다.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그들의 목표를 ①지역자원의 문화상품과 서비스의 장소, 생산, 배포, 향유의 강화, ②여성과 청소년을 포함한 취약집단 내 창의성 및 창의적 표현의 증진, ③문화상품의 향유와 문화생활에 대한 접근성과 참여 향상, ④지역발전계획에 문화와 창의산업의 통합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이 사업은 도시가 가진 창의자산을 기반으로 도시의 경제·사회·문화적 발전을 장려하고, 궁극적으로 유네스코가 추구하는 문화다양성(Cultural Diversity) 및 지속가능한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으로 접근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6] 또한 해당 창의산업(Creative Industry) 분야의 기업들이 도시 안에서 창의적 잠재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 부문의 협력을 강조하며, 개발도상국들의 문화 사업을 통한 국제적 진출을 장려한다. 이 네트워크는 도시가 얼마나 뛰어난 문화자산을 가지고 있는지, 상대적으로 얼마나 발전되어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문화자산을 통해 도시가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도시의 생태계 속에서 문화자산이 도시를 움직이는 원동력으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가 도시를 선정하는 중요한 관점이 된다.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2년마다 일정 기준에 의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도시들이 가입하게 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도시는 유네스코에서 제시한 7

6)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한국 유네스코창의도시네트워크사업 운영지침」 1조 2항.

개 분야(문학, 공예와 민속예술, 디자인, 음악, 미디어아트, 영화, 음식) 중 각 도시의 특성과 환경에 맞는 분야를 선정하여 신청하게 되어 있다.

〈표 1〉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분야 및 국내 가입도시 현황(2017)

분야	문학	영화	음악	공예 & 민속예술	디자인	미디어 아트	음식
국내 가입도시	부천	부산	통영 대구	이천	서울	광주	전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https://www.unesco.or.kr/, 검색일자: 2018.11.4.) 참조.

2018년 현재, 72개국 180개의 도시가 가입되어 있으며, 한국은 총 8개 도시가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다. 각 분야마다 한 도시가 가입되어 있으며, 음악 분야만 통영과 대구의 두 도시가 해당된다. 유네스코에서 분류한 7개의 분야 중 공예와 민속예술 분야의 도시는 현재 37개(한국 이천시 포함) 도시가 해당되며, 선정 기준은 〈표 2〉과 같다.[7]

네트워크 가입을 희망하는 도시들은 유네스코에서 제시한 공통기준과 선택분야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공통 전제로 제시된 기준은 도시의 문화적 환경과 인재, 그리고 이를 순환구조로 연계할 수 있는 기본 생태계의 구축을 도시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구체적으로는 도시 안에서 창의산업(creative industry) 시스템의 구축 여부, 창조적 환경, 창조인재의 유무 여부 및 이를 양성할 수 있는 조직 기반 등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한다. 그 외 각 분야별로는 특화 자원의 속성과 연계한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예와 민속예술 분야의 경우, 공예자원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 현대적 공예의 생산 기반 여부, 창조인력으로서 공예 제작자와 지역 민속예술가의 수, 관련 교육 기반, 각종 이벤트와 행사 등을 통한 홍보 노력, 관련 문화인프라 등을 통해 창조도시로서의 접근 여부를 평가한다.

7)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012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길잡이』, 2013, 107-109쪽.

〈표 2〉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공예 및 민속예술 분야 선정 기준

분야	선정 기준
공통	신청 분야가 속한 창의산업 사슬(Creative industry chain)에서 활동하는 문화행위자의 수와 범위 창의성을 육성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 및 이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의 확보 여부 도시의 창의적 잠재력과 역량이 작게는 가입 신청지역의 문화산업 육성, 넓은 의미로 국제 시장 진출에 있어 통로 역할 수행 가능 여부
공예 및 민속예술 (Craft & Folk Art)	오랜 전통을 가진 독특한 형태의 공예나 민속예술의 유무 공예와 민속예술의 현대적 생산 기반 유무 공예 제작자와 지역 민속예술가의 수 공예와 민속예술과 관련된 직업 양성 센터의 규모 공예와 민속예술 홍보 노력 (축제, 전시, 박람회, 시장 등) 박물관, 공예품점, 지역 예술 박람회 등 관련 인프라의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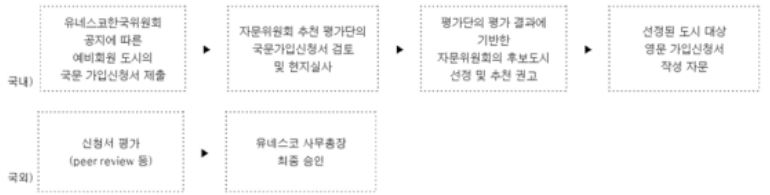
*출처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길잡이』, 2013, 107-109쪽의 내용을 토대로 정리.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가입을 위해서는 국내의 심사와 기가입 도시들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가입 희망도시는 1차적으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예비회원도시로 가입해야 하며, 이후 일정 기간의 활동을 통해 국내 신청 자격을 얻게 된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예비도시들 중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도시에 대한 국내 심사를 거쳐 대표를 추천하고, 추천받은 도시들은 다시 유네스코 본부에 영문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후 최종심사에 의해 가입도시가 선정된다.

최근,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가입도시들의 수는 도시의 문화경쟁력에 대한 인식 제고와 국제연대의 중요성 부상과 함께 유네스코 내부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8] 공예와 민속예술 분야의 경우, 총 37개의 도시 중 2017년에 17개 도시가 가입하며 전체의 과반수가 늘어나기도 했다. 특히, 동남아시아, 남아메리

8) 실제로 2017년의 경우, 가입도시의 수가 64개로 전체 가입도시의 30%에 달한 만큼 급격하게 늘어났다.

카, 아프리카권 도시들의 가입이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 유네스코 추구하는 다양성과 균형의 형태를 점차 갖춰가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림 1〉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절차
(출처 : 관련 자료 취합하여 필자가 재정리)

〈표 3〉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공예와 민속예술 도시 현황(2017년 기준)

도시명	국가	가입연도	도시명	국가	가입연도
샌타페이	미국	2005	자이푸르	인도	2015
아스완	이집트	2005	가브로보	불가리아	2017
가나자와	일본	2009	리모주	프랑스	2017
이천	대한민국	2010	마다바	요르단	2017
항저우	중국	2012	바기오 시티	필리핀	2017
파브리아노	이탈리아	2013	바르셀로스	포르투갈	2017
퍼두커	미국	2013	세키	아제르바이잔	2017
나사우	바하마	2014	소코데	토고	2017
쑤저우	중국	2014	와가두구	부르키나 파소	2017
쟈크멜	아이티	2014	주앙페소아	브라질	2017
징더전	중국	2014	초르델렉	에콰도르	2017
페칼롱간	인도네시아	2014	치앙마이	태국	2017
듀란	에콰도르	2015	카라라	이탈리아	2017
루붐바시	콩고민주 공화국	2015	카이로	이집트	2017
바미얀	아프카니스탄	2015	퀴타히야	터키	2017
사사야마	일본	2015	테투안	모로코	2017
산크리스토발	멕시코	2015	튀니스	튀니지아	2017
알아샤	사우디 아라비아	2015	포르토노보	베냉	2017
이스파한	이란	2015			총 37개 도시

* 출처 : 청주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웤 가입을 위한 '공예도시 청주' 활성화방안 수립 학술연구용역 보고서』, 2017, 37쪽에서 발췌.

III. 창의도시로서 공예도시 사례 연구 : 일본 가나자와시[9)]

1. 일본 가나자와시의 공예도시 형성 배경

가나자와의 문화예술은 에도시대에 가가(加賀)의 마에다가(前田家)의 학문과 예술 장려정책을 바탕으로 성장했다. 문화예술에 높은 관심을 가졌던 마에다가는 가나자와를 문화예술도시로 만들고, 공예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을 시행했다. 이 시기 가나자와는 문예의 급격한 발전이 이루어지며 전통공예품과 생활용품, 미술품들이 활발하게 제작됐으며, 교토와 도쿄에서 금속공예. 칠기 등 공예 장인들을 유입되며 공예문화가 발전했다. 당시에 성장한 가나자와하쿠(金沢箔), 가가유젠(加賀友禅) 등 다양한 전통공예와 다도, 노가쿠(能樂) 등의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현재 가나자와에는 구타니야키(九谷焼), 가가유젠, 가나자와하쿠 등 26개의 전통산업이 존재하며, 전통산업은 여전히 가나자와시의 근간산업이 되고 있다. 가나자와시 내의 관련 사업소는 800여 개, 종사인력은 3천 명에 달하며, 시내 공업 사업소의 약 20%, 사업자수의 약 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가나자와시는 일본 내에서 인구대비 중요무형문화재의 수가 가장 높은 도시이기도 하다.

가나자와가 대표적인 창의도시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공예와 관련된 역사도시에 머물지 않고, 현대적 공예도시로서 다양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가나자와가 공예도시로서 접근하게 된 계기는 1946년에 설립된 '가나자와미술전문학교'의 설립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이 학교는 1955년 '가나자와미술공예대학(金沢美術工芸大学)'으로 명칭을 변경했고,

---

9) 가나자와시의 공예도시와 관련된 기초자료는 필자의 학위논문의 일부를 본 연구 주제에 맞도록 재구성 및 분석하여 사용했음을 밝혀둔다.; 정수희, 「문화콘텐츠를 통한 도시의 지역다움 연구-한·일 공예도시 사례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칠(漆), 염색, 도예 분야 등에서 많은 인재를 배출하고 있으며, 가나자와 지역의 전통 공예산업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등 지역사회의 교육 거점이 되고 있다. 그 밖에도 '우타츠야마 공예공방(卯辰山工芸工房)', '가나자와 직인대학(金沢職人大学)'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예교육기관이 존재하며 전문공예인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10] 또한, 가나자와시는 이전 시대부터 이어져 온 다수의 중소규모 공방과 그 밖의 관련 시설, 전시관, 중소 공예상점 등이 존재하며, 공예도시로서의 인프라를 구축해왔다.

〈그림 2〉 가나자와 미술공예대학 전경
출처 : 가나자와 미술공예대학 홈페이지
(http://www.kanazawa-bidai.ac.jp, 검색일자: 2018.11.14.)

〈그림 3〉 가나자와 우타츠야마 공예 공방 전경
출처 : 우타츠야마 공예공방 홈페이지
(http://www.utatsu-kogei.gr.jp, 검색일자: 2018.11.14.)

10) 우타츠야마공예공방은 공예가들의 레지던스 스튜디오 역할을 하는 동시에, 다양한 강좌와 전시를 통해 가나자와시의 시민과 예술가들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창작공간이다. 가나자와직인대학은 중견기술자들의 재교육기관으로 전통을 계승하는 전문 실무 인력을 육성하는 기관이다.

가나자와가 공예 기반의 창조도시로 접근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1997년 '세계공예도시회의', 2001년 '가나자와 창조도시회의'[11]의 개최를 통해서이다. 이러한 회의들로 인해 가나자와시는 유럽과 미국 등 서구사회의 창조도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게 됐고, 더 나아가 기존의 서구 모델과는 다른 가나자와 스타일의 창조도시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이후에도 2003년 '가나자와 세계공예도시포럼'등 상징적인 공예 관련 전문회의들을 꾸준히 개최했다. 이러한 국제회의들은 국내회의인 '가나자와학회(金沢學會)'와 함께 가나자와시의 도시문화와 문화진흥·문화정책을 추진하는 협력기관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다.[12] 2008년에는 일본 문화청(文化庁) 주관의 '문화예술창조도시'에 선정되는 등 지속적으로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한 창조도시로의 접근을 준비해 왔다.

또한, 공예와 타 분야와의 연계를 통한 유기적인 관점에서의 도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했다. 예를 들어, 가나자와 창조도시의 또 다른 측면으로서 높이 평가되고 있는 시민예술촌, 가나자와21세기미술관 등의 대표 문화시설은 가나자와시가 공예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문화예술과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밖에 패션산업과 디지털기술을 융합한 산업을 연계[13]하는 등 공예를 중심으로 다양한 산업구조가 연결될 수 있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

11) 가나자와 창조도시회의는 '가나자와 경제동우회(金沢經濟同友會)의 창립 40주년 기념 사업으로 설립됐으며, 행정담당, 공예단체 등과 민관공동 운영으로 운영된다.; 인터뷰 내용에 의하면 당시 유럽과 미국 등에서 창조도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고, 이러한 도시모델이 가나자와시의 사례에 적합하다는 판단에서 가나자와 창조도시회의가 결성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건국대학교 글로컬문화전략연구소 가나자와 시청 인터뷰(2016. 2.) 녹취 자료.; 佐々木雅幸,, *創造都市への挑戦ー産業と文化の息づく街へ*, 岩波書店, 2001, p.105.

12) 김후련, 「가나자와형 창조도시 발전전략 연구-문화와 산업의 연계를 중심으로」, 『글로벌문화콘텐츠』 제8권,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012, 92.쪽; 사사키마사유키, 이석현 역, 『창조도시를 디자인하라』, 美세움, 2010, 44-45쪽.

13) 가나자와 패션산업 창조기구(金沢ファッション産業創造機構) : 가나자와의 섬유와 공예 자원에 디지털기술을 입혀 새로운 산업군을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표 4〉 가나자와시 공예도시 추진 과정

연도	내용
1946년	가나자와미술공예대학(가나자와 미술전문학교)설립
1987년	'가나자와 국제예술공예대회' 개최
1995년	가나자와 '세계공예도시 선언'
1996년	가나자와 시민예술촌 설립/가나자와직인대학설립
1997년	'세계공예도시회의' 개최
2001년	'가나자와 창조도시회의' 설립
2003년	'가나자와 세계공예도시' 포럼
2003년	'유와쿠 창작의 숲' 설립
2008년	'일본 문화예술창의도시' 선정
2009년	유네스코 창의도시 '공예와 민속예술' 분야 가입
2010년	제1회 가나자와 세계공예트리엔날레 개최
2015년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세계 연례회의 개최
2017년	제3회 가나자와 세계공예트리엔날레 개최

* 출처 : 정수희, 「문화콘텐츠를 통한 도시의 지역다움 연구–한·일 공예도시 사례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96쪽.

〈표 5〉 가나자와시의 대표 공예자산

유형	세부내용
조직	가나자와예술창조재단 가나자와문화진흥재단 가나자와학회 시청 전담조직
문화시설	우타츠야마 공예공방 가나자와 유와쿠 창작의 숲 이시카와전통산업공예관 가가유젠전통산업회관 야스에금박공예관 21세기미술관 찻집거리, 무사저택지 등의 전통적건조물보존지구, 전통경관
교육기관	가나자와 미술공예대학 가나자와직인대학
프로그램	다양한 공예 관련 지원 프로그램 크래프트 투어리즘 가나자와·세계공예트리엔날레

* 출처 : 정수희, 「문화콘텐츠를 통한 도시의 지역다움 연구–한·일 공예도시 사례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102쪽.

그 결과, 가나자와시는 2009년에 일본 최초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공예와 민속예술' 도시로 선정됐다. 이후, 시는 'Craftism(공예주의) 헌장'을 통해 ①문화와 비즈니스를 연결하는 도시, ②창조적 인재를 육성하는 도시, ③세계를 견인하는 도시의 내용을 창의도시의 비전으로 공표하고, 이에 근거하여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며 '지속가능한 공예도시'로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2. 창의도시의 관점으로 본 가나자와의 문화자산

공예도시로서 가나자와는 에도시대부터 이어져온 역사적 정체성이 매우 뚜렷하다. 때문에 많은 공예도시를 주장하는 도시들이 그렇듯, 도시의 전통으로서의 공예가 중요한 문화자산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가나자와시가 다른 공예도시의 사례와 달리, 창의도시로서 대표성을 갖게 된 데에는 이를 단순히 과거의 영광으로 내세우지 않고 여전히 진행 중인 현대의 공예도시로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가나자와시 역시 다른 지방 중소도시의 많은 경우처럼 산업화사회로 전환되며 전통공예와 장인제품에 대한 관심 저하와 인구감소 등의 도시 쇠퇴로 인해 공예산업의 기반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이를 현대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극복해나갔으며, 그 과정에서 외부의 자본에 의지하지 않고 도시 내부의 시스템을 통해 '내발적 발전(endogenous development)'을 이루었다고 평가받고 있다.[14]

그렇다면, 가나자와가 공예도시를 구축해나가는 과정에서 가나자와시는 도시의 문화자산으로서 공예를 어떻게 유기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서 제시한 '공예와 민속예술' 분야 기준에 의해 정리해봄으로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공예도시로서의 정당성에 해당하는 정체성을 살펴보면, 가나자

14) 사키마사유키, 앞의 책, 41-53쪽.

와는 공예도시로서의 우수한 역사를 갖고 있으며, 과거로부터 전통공예의 명맥이 잘 유지되고 있다. 때문에 역사적 정체성의 측면에서 매우 뛰어난 환경을 가진 도시라고 볼 수 있다. 이 도시는 지금도 전통공예와 관련된 장인 및 시설(전통공방, 박물관, 전시관 등)이 타도시에 비해 질적·양적 측면에서 잘 구축되어 있는 편이다. 뿐만 아니라, 전통역사도시로서의 분위기를 자아내는 전통 경관(겐로쿠엔, 히가시야마 찻집거리, 무사저택지 등)이 잘 남아있어 역사관광도시로서의 기능도 갖추고 있다. 가나자와시에서는 이러한 이점들을 살려, 기존의 관광자원들과 공예시설들을 연계한 새로운 관광상품(크래프트 투어리즘, craft tourism)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15]

가나자와는 전통공예를 현대로 계승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현대적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다. 우타츠야마 공예공방, 유와쿠 창작의 숲, 야스에금박공예관, 이시카와전통산업공예관, 가가유젠전통산업회관 등 전통공예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시설들이 준비되어 있다. 이러 기반 환경들이 도시 안에서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희소공예를 육성하기 위한 제도, 공예공방 개설시 지원제도, 전통산업 계승자에 대한 표창 및 지원제도, 전통공예 아카이브사업('헤이세이 하쿠코히쇼(百工比照)') 등이 이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전통에서 이어진 새로운 가나자와 스타일의 공예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들도 진행되고 있다.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고, '크래프트 히로사카', '모노토히토'와 같은 자체 공예브랜드 점포를 운영하기도 한다. 이처럼 가나자와는 전통공예를 통해 과거의 우수성만을 강조하는 과거형 도시에 머물지 않는다. 현대적 공예환경의 조성, 정책지원과 사업 운영을 통해 '지금

15) 현재 진행되고 있는 크래프트 투어는 가나자와의 공예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관광시설 및 공예공방 등의 정보를 제공해 관광객들이 가나자와의 공예문화를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향후 크래프트 투어리즘은 가나자와 홍보, 관광사업화 모색 등을 위한 확장을 진행 중이며, 학회 등과 연계하여 MICE로의 확장도 염두하고 있다. 정수희, 앞의 글, 95쪽, 100쪽.

의 공예'를 통한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현재진행형의 공예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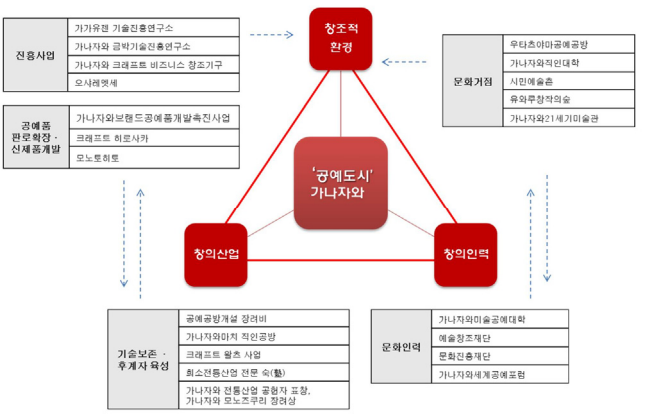
가나자와가 특히 주력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는 창의인재와 관련된 부분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가나자와미술공예대학, 가나자와직인대학 등의 전문적인 교육기관 외에도 신진예술가 및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계층의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대표 사업 중 하나로 '크리에이티브 왈츠(Creative Waltz)' 사업은, 젊은 공예가들이 이문화를 다양하게 접하고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창의도시 네트워크 내의 기타 국가와 상호방문 및 교류를 추진하도록 하는 연수제도이다. 그 밖에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나자와의 전통공예를 체험하고 역사·문화에 대한 스터디를 진행하는 '오픈시티 인 가나자와'사업,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장래의 공예가들을 육성하는 '가나자와 공예 어린이교실' 등 예술가 이외에 다양한 도시구성원들을 위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주목할 만하다.

한편, 창의도시의 요건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도시의 창의자원이 어떻게 도시의 창의산업으로 연계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나자와는 도시시스템 속에서 공예를 창의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가나자와 크래프트 비즈니스 창조기구'는 공예의 판로 확대와 정보발신 등을 위한 지원조직이며, '오샤레 멧세'는 가나자와를 대표하는 패션산업박람회로 가나자와의 섬유와 전통공예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비즈니스화를 추진하기 위한 행사이다. 또한 공예비지니스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크리에이티브 벤처시티 가나자와 추진사업', '인큐베이터 지원사업' 등을 시행 중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가나자와의 산업구조 속에 공예산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외부의 자본에서 보다 자유롭게 가나자와 스타일의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환경을 제공해준다.

그 밖에 공예도시로서 가나자와를 홍보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와 지원정책들도 마련되어 있다. 창의도시 가입 도시들과의 꾸준한 네트워크 활

동을 진행하며 교류 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가나자와 내 창조도시 관련 유관 기관과의 공동연구를 진행하며 선진 창조도시로서의 입지를 굳히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공예도시로서의 대외적인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대형 이벤트들도 진행 중이다. 3년을 주기로 열리는 '가나자와 세계공예 트리엔날레'는 창의도시 가입 이후 새롭게 만들어진 행사로, 가나자와21세기미술관과 함께 가나자와의 공예문화를 지역과 시공간을 초월하여 예술적으로 승화하여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이다.

이상 가나자와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공예와 관련 있는 문화자산들을 창의도시의 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해보았다. 이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가나자와를 이야기할 때 거론되는 문화시설, 교육기관 외에도 현재진행형의 다양한 지원정책들이 가나자와를 더욱 견고한 공예도시로서 만들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도시는 내부의 각각의 구성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완성된다. 더군다나 하나의 브랜드의 가진 도시의 경우, 그 브랜드는 도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가치가 되기도 한다. 공예도시 가나자와 역시 '공예'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도시의 다양한 영역들이 관계를 맺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도식으로 정리해보면, 〈그림 4〉와 같다.



〈그림 11〉 가나자와시의 창의자원으로서 공예자산

IV. 결론 : 창의도시를 통해 본 도시에서 공예의 의미

사례로 살펴본 가나자와시는 역사적으로 구축해 온 도시의 정체성과 문화자산인 공예를 중심으로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의 브랜드를 구축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특히,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라는 국제적 도시 인증 사업과 함께 '공예도시'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로 거론된다. 유네스코 창의도시는 도시가 가진 대표적인 문화자산을 도시를 구성하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해 실제적인 도시의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또한 이들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간의 문화적 연대와 성장을 유도한다. 창의도시의 조건을 통해 가나자와시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가나자와시는 전통적 공예도시로서의 속성에 기반하고 있음에도 공예를 인식함에 있어 과거 속의 문화유산으로 한정짓지 않고 현재와 미래의 가나자와를 움직이는 가치로서 이를 접근하고 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가치를 중심으로 도시의 다양한 정책이 구성되고, 실제적인 인프라와 콘텐츠들이 구축되었으며, 국제사회에서 문화리더로서 자리매김했다.

공예도시를 고민하며 공예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공예는 역사적으로 사회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기, 특히 진보적 기술의 도입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때에 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해왔다. 19세기의 '미술공예운동(Art&Craft Movement)',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悦)의 민예운동(民藝運動), 1950년대의 일본 크래프트운동, 지금의 4차 산업혁명을 대응하는 힘으로서의 메이커스 운동(Maker's movement) 등이 그러한 흐름을 잘 보여준다. 이는 공예가 동시대 사회의 현상을 읽고 반영하며, 다양한 장르, 사람과 기계, 정신과 육체, 감성과 지성을 묶어내는 하나의 결집체임을 보여준다.[16]

16) 정준모, 「지금, 오늘의 공예와 미술관?」, 『2011 청주국제공예 비엔날레 국제학술회의』, 컬쳐북스, 2012, 12쪽.

공예는 필수불가결의 삶의 결과물이다. 때문에 모든 도시의 역사 속에는 공예가 존재한다. 공예는 그 자체로서 문화이며, 가치이다. 또한, 도시의 결과물로서의 문화자산이며, 동시에 도시의 정체성이 되기도 한다. 도시의 환경과 삶의 양태, 가치들이 반영되어 예술적, 실용적, 가치 지향적 결과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도시들에서 공예를 도시의 문화자산으로서 인식하고, 이를 통해 지역정체성과 도시의 이미지를 재정비하고자 한다. 지금까지는 공예의 생산/소비지로서 정체성을 가진 도시들이 공예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해 왔지만, 최근에는 도시를 대표하는 새로운 콘텐츠로 공예를 도입하여 도시브랜딩을 유도하기도 한다. 이는 공예가 가진 무형의 가치와 도시의 정체성을 결합하려는 가치지향적 시각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시각에서 현대의 공예도시는 다양한 공예적 가치가 구심점이 되어 도시의 경쟁력이 되는 도시를 의미한다. 또한 그 가치는 역사성과 함께 현재의 도시구성원들의 삶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17] 즉, '공예도시'는 '공예의 도시(city of craft)'에 대한 접근인 동시에, '도시에서의 공예(craft in city)'에 대한 발견으로서 유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도시의 문화자산으로서 공예는 여러 의미를 갖는다. 도시의 정체성이며, 도시를 움직이는 동력이 된다. 공예는 그것이 생산되거나 소비된 지역의 삶의 환경이 반영되기에 해당 도시의 자연환경과 역사성이 반영된 지역성을 갖는다. 또 한편으로, 현대적 의미에서의 예술품, 일상생활용품으로서의 공예품은 다양한 기술, 문화 환경과 결합하여 도시의 콘텐츠로 성장하고 있으며, 공예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와 교육, 체험, 문화시설 등이 다양한 콘텐츠로 개발되고 있다. 공예는 이처럼 다양한 맥락 속에서 구성된다. 그 다양한 속성만큼이나 도시 안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가진 자산이 된다. 또한, 공예는 단지 유형의 결과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17) 정수희, 앞의 글, 70-73쪽.

그 과정과 정신적 측면에서의 가치로도 존재한다. 완성된 결과물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만들어지는 과정에서의 누가(장인 및 제작자/소비자), 언제(제작시기), 어디서(제작지), 무엇을(종류/형태 등), 어떤 방법(제작방법)으로, 왜(제작목적) 만들었는지가 모두 공예를 이루는 중요한 구성요소가 된다. 때문에, 한 도시에서 생산 혹은 소비되는 공예는 그 도시의 콘텐츠이며 도시가 가진 가치와 비전을 담게 된다.

유사한 맥락으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7개의 주제 중 하나로 공예(공예와 민속예술)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공예가 가지는 문화적 상징성과 가능성을 대변해준다.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기준이 얼마나 우수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문화자산이 도시를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해주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발신할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도시의 문화자산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도시에서의 '공예'에 대한 일부 존재할지 모르는 편협한 시각들을 깨우쳐준다.

이상, 현대 도시에서 도시의 문화자산으로서 공예가 갖는 의미를 유네스코 창의도시인 가나자와의 실제 도시 사례를 통해 살펴봤다. 본 연구는 공예를 도시의 구성요소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시도했으며, 공예도시의 개념에 대해서 실제 도시의 정책과 사례를 통해 접근하고자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도시에서 공예가 가진 새로운 가능성과 가치, 그리고 도시가 공예를 바라보는 방향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사사키 마사유키, 이석현 역,『창조도시를 디자인하라』, 美세움, 2010.

전병태,『유네스코 창조도시 네트워크 가입 지원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제인 제이콥스, 서은경 역,『도시와 국가의 부』, 나남, 2004.

찰스 랜드리, 임상오 역,『창조도시』, 해남, 2008.

최범,『공예를 생각한다』, 안그라픽스. 2017.

강형기,「일본 교토시(京都市)와 가나자와시(金沢市)의 문화산업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 전통산업의 보화와 진흥을 중심으로」,『한국정책연구』 제8권 제1호, 경인행정학회, 2008.

김후련,「가나자와형 창조도시 발전전략 연구 – 문화와 산업의 연계를 중심으로」,『글로벌문화콘텐츠』 제8권,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012.

나주몽,「일본의 문화예술창조도시정책과 창조기반전략의 정책적 함의: 가나자와와 요코하마를 중심으로」,『경제지리학회지』 제19권 제4호, 경제지리학회, 2016.

남기범,「창조도시 논의의 비판적 성찰과 과제」,『도시인문학연구』 제6권 제1호, 도시인문학연구소, 2014.

원도연,「창조도시의 발전과 도시문화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인문콘텐츠』 제22권, 인문콘텐츠학회, 2011.

이병민,「문화자산을 토대로 한 도시재생과 지역발전 : 〈서울동화축제〉 사례를 중심으로」,『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19권 제1호, 한국경제지리학회, 2016.

정수희,「문화콘텐츠를 통한 도시의 지역다움 연구–한·일 공예도시 사례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정수희, 이병민,「창조적 장소자산으로서 예술자산의 유형과 사례 연구」,『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17권 제1호, 한국경제지리학회, 2014.

_____, 「에코뮤지엄의 속성을 통해 본 도시의 문화적 지속가능성 연구」, 『글로벌문화콘텐츠』 제23권,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016.
_____, 「지역의 문화자산으로서 문화콘텐츠와 문화콘텐츠관광 연구 : 일본 콘텐츠 투어리즘 사례를 중심으로」, 『관광연구논총』 제28권 제4호, 관광연구소, 2016.
정준모, 「지금, 오늘의 공예와 미술관?」, 『2011 청주국제공예 비엔날레 국제학술회의』, 컬쳐북스, 2012.
조성태, 강동진, 오민근, 「일본 가나자와(金澤)의 역사문화경관 관리 특성」,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7권 제3호, 한국도시설계학회, 2006.
조아라, 「일본 지방도시의 문화전략과 '지역다움'의 논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4권 제5호, 한국지역지리학회, 2008.

佐々木雅幸, 創造都市への挑戦ー産業と文化の息づく街へ, 岩波書店, 2001.
橋爪紳也, 創造するアジア都市, NTT出版, 2009.
石原多賀子, “都市づくりにおける「金沢の個性」と「創造」–「金沢世界都市構想」具現化における事例を中心に”, 日本都市社会学会年報 Vol.32, 日本都市社会学会, 2014.
金沢市, 金沢創造都市推進プログラム(改訂版), 2013.
金沢市経済局屋営業戦略部クラフト戦略推進課, 平成26年度金沢市伝統工芸施策ガイド, 2015.
_____, 平成27年度金沢市伝統工芸施策ガイド, 2016.

〈ABSTRACT〉

A Study on Craft as Cultural Assets of the City and Craft Cities
- Focused on UNESCO Creative City Case -

Chung, Su Hee

Recently, many cities are referring themselves as to be “Craft City” and putting up “craft” as the city brand. Many cities that claim to be the craft city put up the relevant cultural heritage, production related to the craft, and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as a consumer. However, it can be a totally different matter in which the cities are living as the craft cities of modern definition. One can start to have the fundamental question which “what the craft city really is.”

Naturally, concerns regarding why many cities claim to be the craft city, and what the craft city really is and what the craft means as the component which forms the craft city start to generate. As the significance of the city’s cultural resource is emphasized, cities now endeavor to become the culture city on their own. This is because the value of the “cultural asset” is becoming more precious as the center of the creative industry of the city and as the symbolism and potential of the culture, while the value which measures the competitiveness of the city is shifting from the growth-orientation by formal development. As the paradigm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shift towards the Glocalization, interest in the historical and cultural assets as the factor which composes the locality, what is at the core of Glocalization, is rising. In such flow, the cities are attempting

various approaches to develop their own characteristics into the city brand with names such as “xx City.” In this context, the craft is the major component which forms the Creative City, and it is often mentioned as the core component of the Creative Industry. Additionally, the most distinct cultural asset of the city is often proposed to be the standard of the various culture policies connected to the city, and it is also categorized as one of the fields among Creative Cities Network defined by UNESCO.

This research was conducted as an attempt to search the significance of the craft in the city along with the true nature of the “craft city” that recognizes the craft as the cultural asset of the city and accessing it to utilize it actively.

However, as it was pointed out earlier, the clear definition and concerns about the craft city itself are insufficient, and the research seeks to access to the craft city paradoxically through the real-life examples of the verified craft cities.

The example which the research has chosen was the city of Ganazawa in Japan (selected in 2009); the city has joined as the 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in the field of “craft and folk art.” 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is the international solidarity operation by UNESCO to raise the cultural industry based on the city’s cultural assets and creativity and to promote development through cooperation between cities. This research will find out about the identity of craft as the cultural asset of Ganazawa, the creative city, and it seeks to take a look at cultural environment which helped the city of Ganazawa to set itself as the creative city and the connection of the city’s cultural policies that back the cultural environment. Additionally, in this process, the research seeks to think over about the defini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craft cities including Ganazawa, and the directional nature for the sustainability.

Key Words : Craft City, Cultural Asset, Craft, Creative City, UCCN